

“대중과 호흡하는 불사 계속...”

도심포교 대명사 '구룡사 불사 10년' 정 우 스님

조계종은 3대 역점사업으로 포교, 역경, 인재양성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포교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에 따라 꾸준하고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불교는 있어야 할 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골고루 지리해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목소리이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전해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 포교사.

10년전 강남의 황폐한 땅위에 천막법당을 세워 도심포교의 대명사로 알려진 구룡사를 일군 정우스님을 만나 포교에 온 원력과 포교방향을 들었다.

이다. 이듬해 봄에 남대문에서 천막과 비닐장판, 스티로폼을 구입해 20명자리 천막법당을 세워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7년 만불보전을 기공했지요. 초창기 신도 10여명으로 시작해 오늘의 1만7천세대를 이루었으니 비약의 발전을 한 셈이지요.

—구룡사는 도심속 2천2백여평의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매머드 현대식 양식의 사찰이자 포교당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분당 연화사, 광운보림사 등 신도사에 포교당 10개와 11개의 어린이유치원을 갖추고 있는데 이처럼 왕



수요 인터뷰

—지난 15일 종각 타종식을 끝으로 구룡사 불사 10년을 마감하고 이를 기리기 위해 만불명호사경정진법회를 임재하셨는데 만불보전 불사의 완만회향을 축하드립니다.

●35년 천막법당 법회시작
▲구룡사불사 회향은 아직 멀었습니

성한 포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포교는 이 시대 대중과 불자들의 간절한 욕망입니다. 대중들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 정진을 하다보면 이들의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포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룡사는 21일 정진법회, 교양강좌 등 한달이면 40여 차례가 넘는 법회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월40회 법회 포교당 10곳 건립...소극장·노래방 운영 “삼보정재 공유화는 과제...인류살리기운동 나서야”

다. 금년은 단지 불사시작 10년째일 뿐이고 불사시작에 앞선 준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만불보전을 건립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감싸주었지만 이제 냉혹한 포교의 현실세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불사는 부처님 일입니다. 중생과 더불어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구룡사도 중생과 더불어 회향할 때 진정한 회향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당법사회향으로 축하받기는 아직 이릅니다.

—구룡사는 불보종찰 통도사 서울포교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교당이지만 어느 분사에 뒤처지지 않는 사세를 갖추고 있는데 그 시작은 어땠는지요.
▲본래 구룡사는 78년경 뜻있는 통도사스님들이 모여 작품을 전시해 그 수익 등으로 서울 가회동에 포교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러나 포교원이 자리한 곳이 사대문 안의 한옥보존지역이자 청와대부근으로 신원활동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85년 현 중정 원하스님이 구룡사를 맡아보라 하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미련없이 가회동 법당을 처분하고 그해 10월, 이곳에 땅을 매입했습

91년부터는 고려시대 이후 6백년 동안 끊겼던 백고좌법회를 재현했습니다. 몇 달이고 쉬지 않고 1080배를 하다보면 몸이 따르지 않는 괴로움도 있지만 회향 때마다 신심있는 불자들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구룡사를 일군 힘입니다.

—10년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줄곧 구룡사주지를 맡아 대중을 이끌다 보면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려웠던 일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게 된 것이 기쁘고요, 대중에게서 내가 선택된 것은 커다란 복입니다. 불안한 생각이나 안된다는 생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연경가 노스님 한분이 저에게 “잘 살아주어서 고맙네” 하시더군요. 스님은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어려움의 연속이어서 대중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 구룡사가 고맙고 좋았던 것입니다.

정진하는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내 것을 챙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노스님의 눈물을 기

억하곤 합니다.

—구룡사에는 포교에 원력을 둔 스님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 등 스님에게 배움을 청하는 이들이 많은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요.

▲만물명호 사경법회 입재
▲포교일선에 뛰어든 이는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심이라는 생명력과 원력이라는 정지, 정진이라는 진지함 속에 살다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신 사중서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지를 따르라 △삼보정재를 공유하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기를 권합니다. 이는 곧 제 자신에게 하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스님의 포교관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특히 삼보정재의 공유화는 종교계뿐 아니라 현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로 실천 여부에 따라 성공이 판가름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스님은 개인적으로 수차례 사진 전시회를 갖는가 하면 노래방법회를 열고 극단을 운영하는 등 예술분야에도 남

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이 씨앗이면 종교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도 일종의 모노드라마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손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신 것도 진지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예전에는 스님들이 극단을 결성해 일본, 만주 등지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저 역시 ‘님의 침묵’이란 연극을 통해 부처님을 더 가까이 접하게 됐으니까요. 예술은 훌륭한 포교의 방편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교는 어머니 가슴처럼 편안하고 아늑해야 합니다. 지역단위의 포교당을 결속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물론 대중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포교당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포교의 국제화, 정보화에도 앞장 설 예정입니다.

구룡사대중은 인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포교의 신기원을 이룩해 낼 것입니다.

이준엽 기자



자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사야본사 석가모니불...자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할해 상주일체 불타야중...

법복을 차려입은 회원들이 집전의 목탁소리에 맞춰 모든 번뇌를 끊고 일심으로 참회하며 정진한다. 계정해 삼학을 실천하려는 도반들의 건강하고 바른 신심이 우러나오는 수요일 저녁7시 청주불교금강회의 법회시간이다.

은은히 퍼지는 향내를 맡으며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며 부처님 법에 따라 살겠다는 서원을 다짐고 되새긴다. 내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다. 법당에 앉아 입정에 들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환희심이 일고 지극한 편안함을 느낀다.

각자의 직업이 다르고 생활의 모습도 다르겠지만 다짐의 인연을 다시 맺는 모임인 청주불교금강회는 30대에서 50대까지 4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신앙생활과 함께 진지하고 있는 위치와 지위 때문에 동료나 부하직원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던 불교의

이태랑 <청주 살보기계 대표>



다. 예전에 남자가 젊이나 불교회관에 다닌다고 섣불리 대답을 기피했던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멋있게 말하게 되고 오히려 타종교인들이 대답을 피하는 현상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물론 우리 것을 되찾자는 민족정통성 회복운동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들의 신원생활이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자가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위해 주는 너무나도 간단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법회를 통해 배운 나의 생활지침이기도 하다.

우리 회원들의 대부분이 사회나 직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지위 때문에 동료나 부하직원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던 불교의

‘자신을 낮추자’ 생활지침

‘내가 곧 불교로 비친다’ 생각하며 늘 조심

고 있다. 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창립 아홉달이 넘도록 수요일 저녁 법회시간에 예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비록 일대 한 작은 법당이지만 불교신행단체들의 법회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청주불교계의 한 모퉁이로 알려져 있다. 은근히 자랑스럽다.

금강회관에서 신원생활을 하는 모든 단체는 지도하시는 스님이 안 계시지만 회원 스스로 집전 정진 기도 참선 등을 자치적으로 행한다. 우리불교가 앞으로 나아갈 목표인 대중 불교를 먼저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의 학식과 덕을스님과 재가불자의 법사를 모시고 법문을 청하여 듣기에 어느 한분의 가르침에 치우치지 않고 근기에 맞는 수행 방법으로 정진하고 있다. 나를 포함한 우리 회원들은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지금은 어느 불교인을 만나도 청주불교금강회원이라고 소개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는 선망의 시선을 받는 모범적인 단체로 성장했다.

청주지역에는 십여개의 불교신행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청주불교금강회는 남자들의 신원단체로 불교가 다른 종교의 활동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



그렇된 시각을 버리고 불타가 설한 참된 진리를 조금이나마 접하게 된다. 불교는 말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우러나는 하심과 자비의 향훈으로 퍼져나가는 메아리라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다.

또 거사들의 신앙생활은 포교활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불교가 나를 키워줬듯이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곧 불교로 비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몸과 마음가짐을 흐트릴 수 없다. 불사 한사한 한 사람이 불교를 밝히는

등불인 것이다.

이런 마음 때문인지 매주 수요일 저녁 법회시간이 기다려지고 법회날이 되면 여던지 모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된다. 새삼 만나는 사람마다 정겹다.

내 일생동안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기로 생각하고 대원불교대학을 수료하고 법사호를 수여받았으며, 청주불교금강회원들에게도 공부할 것을 권유해 3명의 법사가 있다. 현재는 6명이 대원불교대학에 입학해 열심히 부처님의 법을 배우며 수행 정진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배울수록 참다운 진리를 볼 수 있는 수승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강같이 굳은 믿음으로 대중불교와 생활불교의 등불이 될 것을 서원한다.

대원불교대학

학생 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대원불교대학에서는 정법의 기치아래
대중불교를 선도할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회암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및종교학	완전강독 I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후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